

## 고로쇠나무 (이타야, 이타야카에데) 단풍나무과

단풍나무류 중에서 가장 크고, 높이가 20 미터, 직경 60 센티미터에 달하는 낙엽수입니다. 수피는 매끄럽지만 어두운 회색이며, 노목이 되면 세로로 얇은 줄이 생깁니다. 잎은 크고 개구리가 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여러 개로 갈라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꽃은 4~5 월경 가지 끝에 황록색 꽃을 무리지어 피웁니다.